

치위생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The Survey of Dental Hygiene Student's Consciousness about the Disabled

곽정숙, 김윤정, 우승희
목포과학대학

Jung-Suk Kwag(skks91@hanmail.net)*, Yoon-Jung Kim(tokyj@hanmail.net)**,
Seung-Hee Woo(sblove5690@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 구강관리를 담당할 치위생과 학생들의 교육 방향성을 제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건전한 인식도를 높이고자, 전남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 5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친구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나, 장애시설에서 봉사활동 또는 구강보건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장애인 구강보건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구강보건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에 장애인 접촉의 기회를 늘려 장애인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장애인 구강관리에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장애인 환자 진료 시 가장 문제점이 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장애인 치료에 대한 경험부족, 장애인 치료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87.5%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교육의 형태는 이론과 실습의 병행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가에서도 장애인 구강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 구강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진료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에 보상을 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중심어 : | 치위생과 학생 | 장애인 | 인식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sciousness about the disabled o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search for course of dental hygiene education as oral health care with the disabled.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38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three college in Jeonnam province. For statistical analyses of collected data, the descriptive analyses and chi-square were adopted.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Seniors showed positive attitude about the disabled and dental service of the disabled($p < 0.05$). The common types of contact the disabled were physical. Cerebral palsy and inner disabled were rarely. The problems are difficulty in communication, short of clinical experience in dental service of the disabled, noncooperation of the disabled, short of knowledge in dental service of the disabled. To dental service of the disabled, demand as necessity of education was 87.5%, theory and practice at the same time was 68.0% in pattern of education. Finally, 49.5% of respondents observed special dental clinic to utilization pattern of dental service of the disabled.

■ keyword : | Dental Hygiene Student | Consciousness | the Disabled |

1. 서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해당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를 발표하면서 장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장애에 대한 보편적인 원칙을 제공하였는데, 이 분류법에 의하면 장애는 손상(impairments), 불능(Disabilities), 사회적 불리(Handicaps)로 구분한다. 손상은 '사람의 심신에 나타나는 구조적 기능적 상실 혹은 비정상'을 의미하고, 불능은 '손상으로 인하여 개인의 이상적인 생활 혹은 활동에 제한으로 나타나는 이차적인 장애'를 의미하며, 사회적 불리는 '손상과 불능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으로서 편견 혹은 차별 등'을 의미한다[1]. 이와 같이 ICIDH에서는 장애를 설명함에 있어 손상의 전제 위에 불능이 논 의되고, 불능의 전제 위에 사회적 장애를 판단하는 인과관계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모델개념은 장애인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더욱 큰 부담감으로 나타나[2] 자녀가 비정상적임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부모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사회생활 참여를 꺼리게 되고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3]. 따라서 이러한 고립감이나 열등감으로 인해 의료시설 등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피하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구강진료시에도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의 탓[4]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구강건강 문제의 80% 이상은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일반인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이용이 편리한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치과진료현황은 장애인 치과진료 구강보건 홈페이지에 (www.dentalfriend.or.kr)[5]에 총 182개의 치과진료기관과 29개의 비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장애인이 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일반인과 더불어 생활하고 의료기관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복지가 개선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신에 대한 다차원의 개입 못지않게 비장애인의 인식에 대한 개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으며[6], 이를 위해서 장애인과 가까워 질 수 있는 각종 행사를 마련하는 것,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계몽운동, 정신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과와의 통합교육 실시, 전문가의 강의나 학교강의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7][8].

따라서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 구강병 예방처치의 주역이 될 치위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접촉여부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장애인 구강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형태 등을 조사하여 장애인 구강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치위생과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건전한 인식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남 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였으며, 설문이 배부된 조사대상은 576명이었으나 수거된 설문은 550명으로 회수율은 95.5%이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치가 많거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12개의 설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연구대상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93.4%였다. 학년 구성은 2학년이 260명(48.3%)으로 가장 많았고, 1학년 및 3학년이 각각 215명(40.0%), 63명(11.7%)이었다.

2.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20일까지 개별자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내용은 개인적 특성변수를 묻는 일반적 특성, 접촉장애 유형, 장애인 구강진료의 문제점, 장애인 구강진료를 위한 교육,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로 구성하였다. 이 중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우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항은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부정적 태도에서 긍정적 태도에 1점에서 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신뢰도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는 0.785, 장애우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에는 0.839로 나타났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년, 장애인 친구 유무, 장애인 가족 유무, 장애시설 봉사활동 경험 유무, 장애시설 구강보건활동 경험 유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표 1의 결과를 얻었다. 장애인 친구 유무에 대해서는 장애인 친구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92.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장애인 가족 유무에서는 장애인 가족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90.9%였다. 장애시설 봉사활동 경험 유무는 장애시설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68.4%, 없는 경우가 31.6%로 나타났으며, 장애시설 구강보건활동 경험 유무는 없는 경우가 90.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1. 일반적 특성

항 목	변 수	빈 도(%)
학년	1학년	215(40.0)
	2학년	260(48.3)
	3학년	63(11.7)
장애인 친구 유무	있음	42(7.8)
	없음	496(92.2)
장애인 가족 유무	있음	49(9.1)
	없음	489(90.9)
장애시설 봉사활동 경험 유무	있음	368(68.4)
	없음	170(31.6)
장애시설 구강보건활동 경험 유무	있음	49(9.1)
	없음	489(90.9)
	계	538(100.0)

3.2 연구대상자가 접한 장애인의 장애유형

연구대상자가 접한 장애인의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51.4%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지체, 언어장애, 자폐,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뇌성마비, 내부장애 순이었다[표 2].

표 2. 접촉 장애유형[#]

항 목	빈 도(%)
지체장애	275(51.4)
정신지체	256(47.8)
언어장애	180(33.6)
자폐	141(26.4)
시각장애	125(23.3)
청각장애	103(19.3)
정신장애	95(17.8)
뇌성마비	67(12.5)
내부장애	12(2.2)

[#] : 복수응답

3.3 장애인 구강 진료 시 문제점

장애인 환자 진료 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의사소통이 69.0%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치료에 대한 경험 부족이 65.9%,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의 비협조, 장애인 치료에 대한 지식 부족, 다른 환자들의 시선, 진료비 순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장애인 구강 진료 시 문제점[#]

항 목	빈 도(%)
의사소통 어려움	370(27.9)
장애인 치료에 대한 경험 부족	353(26.6)
장애인의 비협조	231(17.4)
장애인 치료에 대한 지식 부족	225(17.0)
다른 환자들의 시선	91(6.9)
진료비	56(4.2)

[#] : 복수응답

3.4 장애인 구강진료를 위한 교육에 대한 조사

장애인 구강진료를 위한 교육에 대한 조사로서 교육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가 87.5%로 가장 높게 나왔고, 필요한 교육의 형태로는 이론과 실습의 병행교육이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장애인 구강진료를 위한 교육에 대한 조사

항 목	빈 도(%)	
교육의 필요성 여부	필요하지 않다	7(1.3)
	그저 그렇다	52(9.7)
	필요하다	471(87.5)
	관심없다	6(1.1)
	결측치	2(0.4)
계	538(100.0)	
필요한 교육의 형태	이론교육	16(3.0)
	실습교육	155(28.8)
	이론과 실습 병행교육	363(67.5)
	결측치	4(0.7)
	계	538(100.0)

3.5 장애인 구강진료의 방향

향후 장애인 구강진료의 방향에 관한 조사에서는 장애인 전문 구강보건기관 이용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봉사활동이나 순회진료 이용이 28.1%, 보건소나 지역 복지관의 진료실 이용이 12.6%, 일반 치과의원 이용이 9.8% 순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장애인 구강진료의 방향

항 목	빈 도(%)
장애인 전문구강보건기관 이용	248(46.1)
봉사활동이나 순회진료 이용	141(26.2)
보건소나 지역 복지관의 진료실 이용	63(11.7)
일반 치과의원 이용	49(9.1)
결측치	37(6.9)
계	538(100.0)

3.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지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학년에 따라서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에서 모두 3학년이 2.53, 2.76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1학년, 2학년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항목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장애인 친구 유무에 따라서는 친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 더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2.62, $p<0.05$),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친구가 있는 경우가 더 긍정적인 태도

를 보였으나(2.70),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2.70). 장애인 가족 유무에 따라서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2.67, $p<0.01$),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에서도 가족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시설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 모두에서 더 긍정적으로 조사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장애시설 구강보건활동 경험유무에 따른 조사결과는 구강보건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두 항목 모두에서 더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장애인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지도

항 목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
학년		
1	2.51	2.51
2	2.38	2.48
3	2.53	2.76
p값	0.027*	0.022
장애인 친구 유무		
있음	2.62	2.70
없음	2.43	2.51
p값	0.047*	0.101
장애인 가족 유무		
있음	2.67	2.70
없음	2.42	2.51
p값	0.005**	0.073
장애시설 봉사활동 경험		
있음	2.46	2.55
없음	2.41	2.46
p값	0.304	0.181
장애시설 구강보건활동 경험		
있음	2.60	2.85
없음	2.43	2.49
p값	0.069	0.001**

* : $p<0.05$, ** : $p<0.01$

4. 총괄 및 고안

현대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후천적 장애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장애 유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 이제 정상인들도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내 가족, 가까운 이웃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도달했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형성은 시대적 사상이나 문화적 배경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달라져 가고 있다[9].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은 아직도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음에 틀림없는 것 같다. 이에 장애인들의 구강건강관리인력이 될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촉유형과 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구강관리시의 태도, 장애인 구강진료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전한 인식도를 높이고 장애인 구강진료에 관한 치위생과 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전남지역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친구, 가족, 장애시설 봉사활동, 장애시설 구강보건활동에서는 장애시설 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접촉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학년에 따라서는 3학년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p < 0.05$). 이는 교육기간동안 학습되어진 사고의 변화와 직·간접적인 실습의 효과라 사료되어진다. 장애인 친구 유무와 장애인 가족 유무에 따라서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05$),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장애시설 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두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장애시설 구강보건활동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영역에서는 구강보건활동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을 주변에 두고 있어 신체적, 정서적 거리감이 그다지 멀게 느껴지지 않은 결과라 사료되며, 또 하나는 장애인시설에서 일반적인 봉사활동 보다는 구강보건활동의 기회를 가진 집단이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김[5]은 그의 연구에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즉, 성별, 가족구성원 중 장애유무, 학년, 종교,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장애인과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친구나 가까운 주변인 중 장애인 유무, 자원봉사 경험, 장애인 접촉 유무, 가족의 월수입 평균에 따라서는 장애영역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모두의 영역에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장애인과의 접촉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그 거리감을 좁히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변수라 생각된다. 특히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장애인 구강보건봉사활동의 기회를 좀 더 늘려 장애인 구강관리에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이들이 접촉한 장애유형이 지체장애가 가장 많고 뇌성마비나 내부장애가 가장 적은 것은 김[6]의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사회적 거리감이 뇌성마비에서 가장 멀게 느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사료되는데 접촉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거리감은 작아지고, 거리감이 작아질수록 좀 더 많은 접촉이 일어나 결국 더욱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 김[4]은 그의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을 갖게 하는 요인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결여,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으로 나열하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 장애인과 일반인의 접촉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가 개선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자신에 대한 다차원의 개입 못지않게 비장애인의 인식에 대한 개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였다. 박[7], 류[8], 이[9] 또한 장애인

에 대한 접촉과 정보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장애인을 이해시키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장애인 환자 진료 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일 많이 보였으며, 장애인 치료에 대한 경험부족, 장애인의 비협조, 장애인 치료에 대한 지식부족이 40% 이상을 차지하여 치과 의료인으로서 먼저는 장애인과의 관계 형성 및 장애인 진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실제적으로 김[4]등에서도 장애인 치료에 대한 치과의료인들의 전문지식의 부족과 행동조절의 기술부족 등으로 장애인의 적절한 치료를 행해오지 못했고, 대부분이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지체장애인의 구강 내 질환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으며, 권의 연구결과에서도 장애인 치과 이용 시 어머니의 부담감으로 적절한 치과나 치과의사를 찾지 못하는 부분이 조사되었다. 이에 권 등[2][4][10-14]은 치과대학 및 치위생(학)과에 장애인 치과학을 개설하여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장애인 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습득이 필요하겠고, 또한 장기적으로 장애인 치과학 전공의 제도를 도입하여 그들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 있는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인력 배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하였다[2]. 본 연구에서도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여부와 필요한 교육의 형태에 87.5%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보였고, 교육의 형태에서는 이론과 실습 병행교육이 68%로 높게 조사되어 장차 구강관리의 주 역할을 맡게 될 치위생과 학생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구강진료의 방향에 관한 조사에서는 장애인 전문 구강보건기관 이용이 49.5%로 조사되어 배[15]의 연구결과와 같이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그러나 권[2]의 연구결과에서는 미래 치과진료방향에 대해서 일반 치과의원에서도 장애인이 편안하고 쉽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나 양자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저자는 배[15]와 권[2]의 연구에서 언급하

였듯이 국가에서 장애인 구강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 구강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진료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에 보상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 등을 개발하는 등의 전문분야 간의 상호협조가 활발히 이루어져 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치과의원 방문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대다수의 치과의원이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병의원을 찾기에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장애인 구강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치위생과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건전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인식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얻고자 전남 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 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남지역 치위생과에 재학중인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친구, 가족,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장애인시설 구강보건활동에서는 장애시설 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접촉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학년에 따라서는 3학년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구강관리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5$).
2. 접촉한 장애유형이 지체장애가 가장 많고, 뇌성마비나 내부장애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3. 장애인 환자 진료 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일 많이 보였으며, 장애인 치료에 대한 경험부족, 장애인의 비협조, 장애인 치료에 대한 지식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4.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여부와 필요한 교육의 형태에 대하여 87.5%에서 교육의 필

요성을 보였고, 교육의 형태에서는 이론과 실습 병행교육이 68.0%로 높게 조사되었다.

5. 마지막으로 장애인 구강진료의 방향에 관한 조사에서는 장애인 전문 구강보건기관 이용이 49.5%로 조사되었다.

참고문헌

[1] 강부월, 권현숙, 김설악, **장애인 구강보건관리학**, 고문사, 2004.

[2] 권용화, "장애인의 치과의료기관 이용시 장애인 어머니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위생학회지**, 제8권, 제1호, pp.1-16, 2006.

[3] 이지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4] 김영숙, 권호근,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자의 구강보건인식도가 장애인의 치과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구강보건학회지**, 제21권, 제4호, pp.649-67, 1997.

[5] <http://www.dentalfriend.or.kr>

[6] 김미옥,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4권, pp.99-126, 2002.

[7] 박은경,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8] 류원상,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9] 이철원,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수용태", **한국 특수체육학회지**, 제8권, 제2호, pp.59-71, 2000.

[10] 김효정,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 김희경, 김종열, "**교사들의 인식도 및 관리태도를 통한 장애인의 구강보건관리실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2] 김영숙,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자의 구강보건인**

식도가 장애인의 치과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3] 김선미, "장애인의 치과진료현황과 치과의사의 교육 및 훈련정도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제28권, 제1호, pp.87-94, 2001.

[14] 김선미, "장애인의 치과진료현황과 치과위생사의 교육 및 훈련정도에 대한 연구", **한국구강건강증진학회지**, 제1권, 제1호, pp.111-122, 2000.

[15] 배현숙, "장애아동 보호자의 구강건강관리 인식", **한국치위생과학회지**, 제7권, 제2호, pp.81-87, 2007.

저자 소개

곽 정 숙(Jung-Suk Kwag)

정회원



• 1997년 ~ 2004년 : 원광대학교 화학과(이학박사)
<관심분야> : 장애인구강보건.

김 윤 정(Yoon-Jung Kim)

정회원



• 1997년 ~ 2004년 : 원광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우 승 희(Seung-Hee Woo)

정회원



• 1997년 ~ 2004년 : 조선대학교 구강보건학과(보건학석사)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